

中國 納西族의 東巴文字를 통한 마음의 치유 — 문화심리학적 접근방법 소고(小考) —

이주은 연세대 중국연구원 연구원

I. 서론

30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심리학’이나 ‘토착심리학’이라는 말은 구미의 심리학계에서 별반 사용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비교문화심리학’이라는 개념과 접근이 소수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비교문화심리학에서의 연구는 다분히 전통심리학의 기본 패러다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었다¹⁾.

지금도 중국의 운남성에서는 소수민족인 납서족이 사용하는 동파문자가 잔존해 있다. 그들은 지형학적으로도 다소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진 않았지만, 중국의 고대문자의 기원이 된 갑골문자와 비슷한 상형성을 지닌 동파문자로 사용하기에 연구 가치가 십분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갑골문자와 비교해서 연구해 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연구방법인 문화심리학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인 동파문자를 문화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소고해 보고자 한다.

II. 문화심리학의 이론적 틀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인 Wundt는 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며, 어떤 학문이어야 하는가를 구상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심리학을 ‘자연과학적 심리학’과 ‘사회-문화과학적 심리학’으로 구분하여, 이 두 가지 심리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완전한 심리학이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또한 연구를 통해 실천하였다. 그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감각 지각 수준의 생물심리현상과 의식과 고등정신기능에 해당되는 사회-문화심리현상으로 크게 구분하여, 전자의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론을, 후자의 연구에서는 신화, 언어, 풍습, 역사적 유물, 민속 및 관습 등을 분석하는 현대적 의미의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그가 말하는 실험심리학이며, 후자는 민족심리학(Volkerpsychologie)으로서 현대적 의미로는 사회-문화심리학이다²⁾.

1) 최상진·김기범 《문화심리학-현대 한국인의 심리분석》, (주)지식산업사, 2016, 1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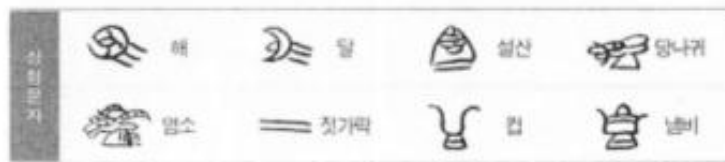
2) 최상진·김기범 《문화심리학-현대 한국인의 심리분석》, (주)지식산업사, 2016, 31p.

Ⅲ. 동파문자의 이해

납서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토착설인데 이는 고고학적 발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1956년 봄에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여강 고성에서 11km 떨어진 양서촌(陽西村)의 목가교(木家橋) 남쪽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내지 5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의 넓적다리 뼈 화석 3개와 어린이 두개골 화석 1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구석기 28개를 발굴해내었던 바, 이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³⁾.

서부방언을 사용하는 납서족은 상형문자(象形文字)⁴⁾, 표음문자(表音文字)⁵⁾, 부가문자(附加文字)⁶⁾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문자들은 동파(東巴)라고 부르는 동파교(東巴教)의 경사(經師)나 제사(祭司)들이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파문자(東巴文字)로 불리고 있다⁷⁾.

동파문자의 창제시기에 대해서는 은대(殷代 B.C. 1600년 무렵 ~ B.C. 1046년)이전이라는 설, 당대(唐代 618년 ~ 907년)라는 설, 송대(宋代 960년 ~ 1279년), 명대(明代 1368년 ~ 1644년)이라는 설 등 여러 학설이 있지만 아직 정설은 없다. 동파문자의 기원을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동파교 경서인데 현존하는 경서 가운데 제작자와 제작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때문에 그 기원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⁸⁾.



< 그림 1. 상형문자 >



< 그림 2. 부가문자 >

3) 김용완 《중국 납서족의 문화》, 충남대학교 출판부(궁미디어), 2010.

4) 동파문자의 3개 문자 가운데 주를 이루는 것은 납서어로 삼구노구(森久魯久), 혹은 사구노구(斯究魯究)라고 부르는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이다.

5) 언어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이다.

6) 기존의 상형문자에 각종 선이나 점을 추가하여 만든 문자이다.

7) 김용완 《중국 납서족의 문화》, 충남대학교 출판부(궁미디어), 2010.

8) 김용완 《중국 납서족의 문화》, 충남대학교 출판부(궁미디어), 2010.

1) 東巴文字에 나타난 納西族의 사상과 문화

중국 대륙의 서남쪽에 위치한 운남성(雲南省)에 가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강(麗江)이라는 곳이 있다. 5,700여 미터의 만년설 옥룡설산(玉龍雪山)을 배경으로 비추는 고즈넉한 달빛은 마치 이곳이 신선의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6~700년은 됴직한 오래된 집(古家)에서 그들만의 종교를 믿고 그들만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며 그들만의 음악을 즐긴다. 이곳은 이미 1997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곳에 사는 주인공들이 바로 납서족(納西族)이라는 소수민족인데, 그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상형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고유 종교인 동파교(東巴教) 경전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서 “東巴文字” 라고도 불리는 이 상형문자는 무려 1,400여 자에 이른다.

(1) 我 (나 아)



이 상형문자는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으며, 개별적인 개체의 존재를 강조한다.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사고 중의 강렬한 자아의식을 나타낸다. 납서족은 그 변화에 순응하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린다. 각종 외래문화를 사용하면서, 선명한 민족 고유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다. 다른 개체의 민족과 다른 자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다.

(2) 美 (아름답다 미)



꽃이 피어남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또한 인간의 아름다움도 표현한다. 달밤 늦은 시간에 결혼 안 한 여인들을 들쳐업고 달아나서 네 다섯 명의 아가씨를 한 줄로 서게 하고 웃고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 1940년대의 납서족 여인들을 묘사한다⁹⁾. 아름다움은 달빛을 머금은 수줍은 여인의 모습과 같다.

(3) 唱 (부르다 창)



9) 人蕃茄傳媒機構 《世界文化記憶遺產 - 活着的象形文字》，雲南出版集團公司 雲南人民出版社，2009.

麗江에서 納西人들은 애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 노래를 불러서 표현했다.

첫째 날에는 창문 뒤에서 노래를 불러서 듣게 했고, 둘째 날에는 달 아래서 듣도록 했고, 셋째 날에는 밤에 듣도록 했다.

하와이에서 “알로하~~”를 길게 불러서, 그 길이에 따라 애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납서족의 애정표현이 이해가 간다..

一生一代에 힘을 쓰지 않고 어떻게 결혼이 가능했을까? 요즈음 젊은이들을 보면, 이러한 순수한 애정 행위가 그리워진다.



(4) 春夏秋冬



納西族의 전설 중에, 인간과 자연신은 ‘더위’가 형제이다. 그들은 자연과 서로 의존한다.

麗江은 성벽이 없다. 그들은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만물에 정이 있다고 표현한다. 봄에는 바람이 불고 여름에서 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모두 매우 아름답다. 사람으로 하여금 각종 비밀스런 기쁨과 희열을 느끼도록 한다.



(5) 愛 (사랑하다 애)

남자가 왼쪽에, 여자가 오른쪽에 있다. P는 바늘 침을 의미한다. 심상에 바늘 침 머리가 감미롭게 찢려서 고통스러운 것을 나타낸다. 서로에게 예리하게 찢림은 곧 애정의 격리를 의미한다.

문자 중에 ‘好’는 남녀가 가 함께 있어서 ‘好(좋다 호)’라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좋다는 것은 곧 사랑의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납서족은 사랑을 믿음으로 생각하였다. 만약 서로 사랑하는데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¹⁰⁾.

그들은 좋은 술과 음식 그리고 좋은 옷을 사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은신처로 삼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나서 옷을 입고 사랑의 천국을 향하여 스텝을 밟는다. 그렇게 사랑을 승화시킨다.

10) 동파교에서는 청춘 남녀의 정사(情死)가 풍(風)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7명의 여귀(女鬼)의 심술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젊은 남녀가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제를 올려 7명의 미녀 귀신 즉 정귀(情鬼)를 달랜다. 이 때 연인을 위해 자살한 원귀(冤鬼)들이 원한을 품고 제 갈 길을 가도록 하는 의식을 동시에 행한다. 납서어로는 이것을 해랍이궁(海拉裏肯)이라고 부른다. - 김용완 《중국 납서족의 문화》, 충남대학교 출판부(궁미디어), 2010.

(6) 장사를 하다 (Doing Business)



사업을 하는 중에는 (장사를 하는 중에는) 입을 필요로 한다. 가격을 흥정하기에 입을 강조한다. 납서족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 상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부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한다. 여자가 주인이고 남자는 체스(장기)와 갤러리, 페인팅, 담배, 와인, 차 등을 다룬다.

위의 동파문자 표현 중에서 입으로 싸우는 행동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을 잡고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진다. 협상과 상의도 지혜롭게 잘 한다면, 얼마든지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중국인들이 협상을 할 때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먼저 뜨는 것을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7) 빈곤자

이 문자는 의복이 남루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을 하고 있다. 만약 돈이 없고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다. 자유가 있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또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기업가나 정치계 유명인사들도 바쁘게 살다가 건강 망치고 노년에 힘들어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물질이나 돈이 없다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다. 탐욕으로 인하여 넘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8) 숫자 (數字)



一, 二, 三, 四 우리가 셈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렇게 세는 법은 사실은 나뭇잎을 연구해서 나온 것이다. 점차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고 대나무 필체로 힘있게 쓴 특징이 물어나온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는 사과로 숫자가 표현되고 있다.

어느 동파문의 기록 중에 다음과 같은 시도 있다.

나는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신은 결국 감동해서 나의 바램을 묻는다.

나는 말한다. 모든 친구들이 일생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칠일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삼일- 어제, 오늘, 내일
 이틀- 낮과 밤
 단 하루- 활력있는 삶
 신은 웃고 또 웃는다.



(9) 笑 (웃다 소)

納西族은 때때로 쾌락을 즐긴다. 농사 때에는 노래 부르고, 농한기에는 춤을 춘다. 東巴文에 “쾌락”은 꽃 두 송이가 낭만적으로 피어있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꽃은 떨어진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웃고 또 웃어도 부족함이 없는 밝은 세상이 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밝게 살고 납서족과 같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그 속에서 삶의 소중한 진리들을 깨우쳐 알 수 있는 지혜와 정서를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0) 饮酒 (음주)

麗江의 窖酒는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많은 종류의 과실로 만든다. 온도도 높지 않고, 입맛도 달달하다. 이전에 麗江의 매우 많은 상점에서 팔았던 음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거리 노천상에서도 한 잔을 기울일 정도였다. 허심탄회하게 몇 잔을 마시고 나서는 풀피리를 불며 거리를 활보한다.



(11) 幸福 (행복)

納西族은 삶 자체를 신앙으로 간주하고, 소박한 즐거움을 추구한다. 어떤 이는 納西人이 추구하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에 과수원이 있고, 소나 말이 무리를 이루어 많이 있고, 집이 넓고, 부인이 있고, 아들과 손자가 집에 많이 있고, 양식과 음주가 곳곳에 차 있고 성욕이 강하고 건강하고, 신선한 꽃이 들과 초원에 있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연회를 즐길 수 있다.

(12) 胖 (뚱뚱하다)



위의 동파문자를 보면, 뚱뚱해서 목이 안보이고 손이 올라가 있다. 상형문자의 매력은 이러한 것에 있는 것 같다. 사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묘사함에 있어서, 고도로 개괄적이고 함축적이다. 우리는 심리형상(心理形像)의 생동감을 비춰보며 느껴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살이 많이 찼다고 걱정을 한다. 자기자신에게 있는 결핍된 감정이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한다. 결핍이 있기에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이다. 내 안의 결핍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결핍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먼 훗날 내 안의 결핍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13) 怕 (두렵다)

두려움은 인체의 일종의 반응이다. 입과 마음, 신체의 여러부위가 떨린다. 그러나 納西人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두려움에 대하여 반응하였다. 東巴教는 여러 신들을 숭배했다. 대략 2,400여개의 신¹¹⁾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²⁾. 사람들은 각종 여러 신들(예를 들어, 가축신·약신·전쟁신 등)을 향하여 보호를 구하며 제사를 지내고 동파춤을 춘다. 일부 동작은 악신에 저항하는 동작을 모방한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納西人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준다.



(14) 哭 (울다)

만약 마음의 탈출구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신체 중 눈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어디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가

11) 호랑이, 용, 말, 박쥐, 개구리, 백학, 개미, 나비, 개, 고양이, 까마귀 등과 같은 동물들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숭배한다. 즉 호랑이는 남서족 선민들이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길을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남서족으로 하여금 용맹성을 갖도록 해주었다는 이유로, 말은 사람을 위해 집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태우고 전투를 하며, 죽은 자의 영혼을 조상의 영혼들이 사는 곳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용은 비를 적기에 내려 풍년이 들게 한다는 이유로, 개와 고양이는 하늘로부터 곡식의 종자를 가져와 남서족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까마귀는 남서족 최초의 순정녀인 개미구명금(開美久命金)을 위해 그녀의 애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이유로 숭배한다. - 김용완 《중국 남서족의 문화》, 충남대학교 출판부(궁미디어), 2010.

12) 人蕃茄傳媒機構 《世界文化記憶遺產 - 活着的象形文字》, 雲南出版集團公司 雲南人民出版社, 2009.

히 천부(天賦)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숨기고 있는 감정을 눈물을 자극함으로써 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위의 문자를 보면, 옛날 사람들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15) 家 (집)



집 안에 상형화된 모습은 담배 잎과 바늘이라고 한다¹³⁾.

漢字 甲骨文 속의 집은 가축이 있는 집이다.

漢族이 거주하는 곳은 고정되어 있기에 가축을 길렀다.

納西族은 일찍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남자는 담배를 피고, 여자는 바느질하는 곳으로 여겼다. 집 안에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화목하고 즐거운 집”으로 축복한다. 큰 집이 아니어도 따뜻한 사람과 따뜻한 정서(온기)가 있어야 한다. 집은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따뜻해야 한다. 만약 사랑의 온기가 없다면, 집(가정)이 아닌 것이다. 요즘 1인 가족¹⁴⁾이 증가하고 핵가족과 흩어진 가족의 개념이 다시금 정립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6) 心乱 (심란)



천 만개의 정서 가락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음이 느껴진다. 잘라내지 않으면 끊기가 어렵다. 강한 브레이크(그치게 하기)를 위해서는 많은 용서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칼을 들기 주저한다면, 당신은 참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언젠가는 답을 알게 될 것이고 잊게 될 것이다.

이 문자는 특히나 상하고 아픈 감정을 치유함과 동시에, 용서를 통한 회복과 감정의 인내를 통한 귀한 열매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

(17) 生死离别 (생사이별)



13) 人蕃茄傳媒機構 《世界文化記憶遺產 - 活着的象形文字》，雲南出版集團公司 雲南人民出版社, 2009.

14) 동과교를 믿는 남서족은 가족이 단결하고, 비와 바람이 적당히 내리고 불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가족 단위로 천제를 지낸다. 제를 올릴 때에는 먼저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을 설치하고 그 옆에 두 그루의 황률수(黃栗樹)를 세워놓아 천부(天父)와 천모(天母)를 상징하게 한다. - 김용완 《중국 남서족의 문화》，충남대학교 출판부(궁미디어), 2010.

왼쪽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죽은 사람이다.

생사이별(生死離別)은 영원을 위한 고통의 일부분이다.

東巴 장례 중에 이러한 내용을 읊조린다.

“나무는 늙으면 쓰러지고 꽃은 피면 떨어져 지고, 사람은 태어나 늙고 죽어간다¹⁵⁾.”

納西人들은 죽음이 일종의 결말이 아니어서, 의식을 통하여 죽은 영혼은 북방에 있는 納西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여기며 새로운 신생아기로 태어나 새로운 세계에 직면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길을 잃는다고 여긴다.

만약 우리가 사망을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기쁨으로 여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일의 삶이 즐거울 것이다.



(18) 飢 (배고프다) / 飽 (배부르다)

배 속이 비어 있으면, 飢(굶주리다 기)이다.

배 속이 채워지면, 飽(배부르다 포)이다.

배가 부를 때 우리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다음과 같은 우스운 일화가 있다.

어린이가 어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수행하세요?

“밥을 먹고 잔다”

“저도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수행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는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밥을 먹어야 할 때 먹지 않기 때문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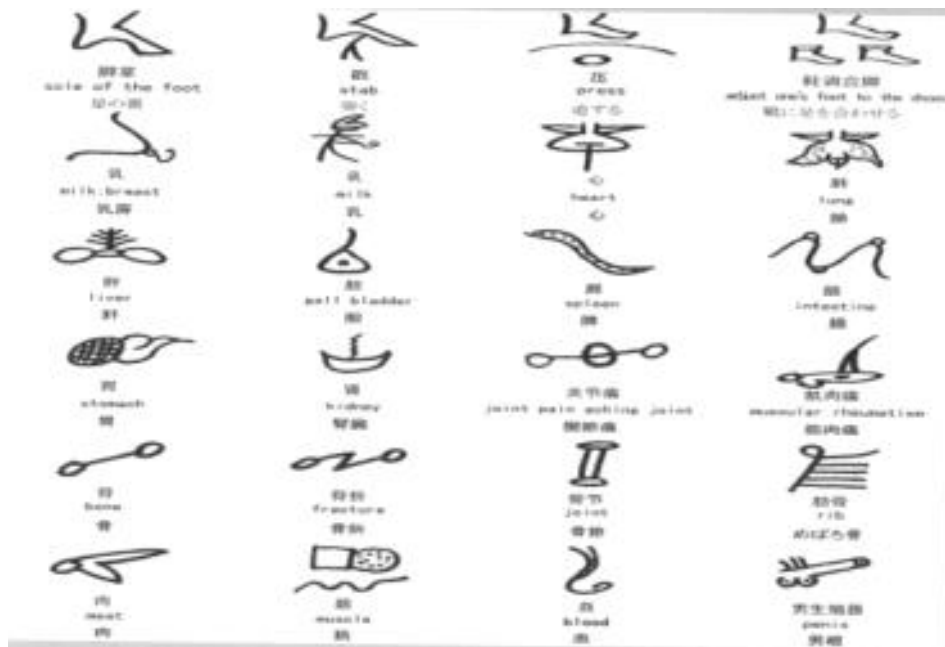
(19) 天 (하늘 천) 〇

동파문자에서 하늘을 〇 처럼 둥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려 놓았다. 우리말에서 하늘은 그 語源이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양’과 관련이 된 듯하다. 그래서인지 지평선 너머, 수평선 너머 일출과 일몰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15) 人蕃茄傳媒機構 《世界文化記憶遺產 - 活着的象形文字》，雲南出版集團公司 雲南人民出版社，2009.



< 그림 1. 東巴文 字典 >



< 그림 2. 東巴文 字典 >

IV. 갑골문자와 비교

1) 我 (나 아) 

“戈”가 “我”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 《說文解字》의 전통 해석에 의하면,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

후세의 학자들은 甲骨文 중의 자형을 인용하여 세 개의 예리한 무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金文을 이용해 두 개의 무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라고도 한다. 어찌되었건 간에, “我”자는 무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찍이 갑골복사(甲骨卜辭)에서 국왕과 그의 巫師가 길흉화복의 점을 쳤다.

어떤 卜辭에서는 그의 이웃 국가와 전쟁을 치르는데 손에 무기를 지니고 있으며, 독존하는 권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商代의 전쟁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들은 영토를 보존하고 노예를 쟁탈한다.

卜辭에 의하면, 한 번 정벌하게 되면 많은 노예가 생겨 토지를 경작하고 집을 건축한다. 또한 소, 양, 개와 함께 儀式(의식) 중에 제사품(祭祀品)으로 바친다. 아래의 그림에 의하면,

내가 지고 있는 인생 무게의 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어깨를 짓누르는 힘들어 커져서 스스로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삶의 여유와 여백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그림 3. “我”의 甲骨文과 金文 字形¹⁶⁾ >




2) 美 (아름답다 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중국 전통 미덕(美德) 중의 하나이다. 일찍이 甲骨文에서 楷書(해서)에 이르는 동안 왜 美가 羊과 계속 관련이 있다고 여겼던 것일까?


우리는 갑골문에서 美를 고찰해 봄으로써,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16) 林西莉 《漢字王國》，山東書報出版社，1999.

갑골문에서 美를 묘사하는 자형은 매우 많다.

갑골문에서  美 (아름답다 미)  는 ‘대(大) + 양(羊) ’이다. 그래서 큰 양이 제물로 바치기에 아름답고 좋다고 풀이하나 이는 오류다. 아름다울 미(美)에서 양(羊)은 의(義)의 양과 마찬가지로 양 장식이다.

큰 대(大)는 사람이 버티고 선 모습의 상형이다. 원시 축제 때 남자들이 양가죽, 양 뿔 장식으로 치장해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것이 바로 미(美)다. 여기에서 ‘보기 좋다’는 모습의 아름다울 미(美)란 뜻이 파생되었다.


소전(小篆)에서 “美”는 “”로 씌여져 있다.

허신(許慎)이 《說文解字·羊部》에서 : “美, 甘也。从羊, 从大。” 단옥재 주에서 "단 맛은 오감 중의 하나이다. 아름다운 맛은 모두 달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美"는 회의자이다. "羊"과 "大" 두 개의 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뜻은 아름다운 맛이다. 고대 인들은 양이 크면 클수록 고기 맛이 좋다고 여겼으며, 풍성하여 생명력이 왕성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양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미각(味覺)의 용도에서, 후자는 시각(視覺)의 용도에서 그 뜻을 말하였다. 이로부터 "美"는 갑골문에서 해서에 이르기까지,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민들의 눈에 양은 형체와 맛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說文解字·羊部》에서 “羊, 祥也。” 그 뜻은 양은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뜻이다. 위의 내용을 보아도 선민들의 양에 대한 관념이 "羊"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幸福 (행복) ,

福은 갑골문에서처럼 바로 술독(酉)  을 두 손으로 들고 조상의 신주(示) 앞에서 따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후 두 손을 나타내는 부분은 생략되고 술독(酉)의 모습이 조금 변해 지금처럼 되었다¹⁷⁾. 조상신에게 술(酉)을 올려 福을 기원하는 제사(示)에서 福이라는 의미가 생겼다. 그리고 술독(酉)이 집안(宀)에 모셔져 있는 모습이 富이다. 술독까지 갖추었으니 갖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뜻으로부터 富裕(부유)에서처럼 ‘넉넉하다’는 뜻이 나왔다.

이처럼 古代 社會에서 술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주신(酒神)이 등장하듯 술은 농경사회를 포함해서 고대 사회의 풍요의 상징이었다. 술을 빚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는 언제나 술을 수반하게 되었고, 집안에 술독을 모셔놓고 있는 모습이 富의 어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福이어서 그런지 福에 대한 그리움도 다양하다. 五福(오

17) 하영삼 《뿌리한자 : 어원으로 읽는 150 문화어휘》, 서울 : 3, 2019.

복)은 長壽(장수), 富(부), 康寧(강녕), 好德(호덕), 善終(선종)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長壽가 최고였던지 壽福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중국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박쥐(蝠)는 박쥐가 갖고 있는 이중성과 괴상하게 생긴 형상에도 불구하고 蝠은 福과 발음이 같다는 이유에서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들은 박쥐만 그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꽃사슴(鹿)도 함께 그려 놓는다. 鹿은 祿(녹봉 록)과 발음이 같다. 그래서 박쥐와 사슴을 함께 그린 그림은 ‘福祿’을 뜻한다.

富와 壽에 대한 추구가 福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荀子(순자)의 말처럼 “근심을 없앨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福”일 것이요 것처럼 걱정을 줄이며 담백하게 살 수 있으면 그만이다¹⁸⁾.

4) 天 (하늘 천) 𠀠 𠀡 𠀢, 〇

甲骨文의 용례를 보면,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天空(하늘)’의 의미는 殷商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大’와 동의어로 쓰이거나 사람의 머리 혹은 정수리를 뜻하였다.『說文解字』에서 “天은 顛(정수리)이다. 지극히 높아 上(더 높은 곳)이 없다(天, 顛也, 至高無上).”라고 하여 ‘天’은 본래 숭고하거나 어떠한 신비로운 함의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사람의 가장 높은 공간이나 절대 권위의 권력자,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의지, 뜻 등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⁹⁾.

오늘의 하늘을 뜻하는 天(하늘 천)은 갑골문에서 의외로 사람 머리를 크게 키워 그려 놓았다. 그래서 天은 商나라 당시만 하더라도 정수리를 뜻하는 글자였고, 갑골문에서도 정수리가 아프다는 표현을 天疾(天疾)이라고 표기했다. 이후 天은 인간의 정수리와 맞닿는 부분, 즉 ‘하늘’이라는 뜻이 되었다. 이렇듯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을 인간을 넘어선,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초월성이나 무한성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인간의 존재 없이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그려냈던 것이다.

그들이 하늘을 객관적 존재가 아닌 인간을 매개로 나타냈으며, 인간관계 속에서 하늘을 인식한 것은 서구의 인식 체계와는 매우 다른 면이며, 이 글자는 중국 특유의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분명하게 반영된 글자이다.

따라서 한자에서 하늘(天)의 근본은 사람(人)이다. 人(사람 인)은 서 있는 사람을 측면에서 그린 것이요, 이를 정면에서 그리면 大(큰 대)가 된다. 측면 모습보다 정면 모습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大는 ‘크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大의 머리 부분에 가로획을 더하면 夫(지아비 부)가 된다. 夫는 사람이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는 모습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남자도 어른이 되면 머리에 올려 비녀를 꽂았다. 그래서 夫는 ‘성인 남자’, 이후에는 ‘지아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글자를 두고서 ‘하늘보다 높은 것이 지아비’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남성

18) 하영삼 《뿌리한자 : 어원으로 읽는 150 문화어휘》, 서울 : 3. 재인용, 2019.

19) 박성우, 문치웅 <출토자료를 통해 본 ‘天’의 本義와 변천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 97집, 2020.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잘못된 글자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5) 숫자 (數字)



갑골문의 1, 2, 3은 지금도 변화가 없고 4는 춘추전국시대 금문 중 𠄎 로 변화되었고 또한 𠄎 로 쓰여졌다. “五”는 줄곧 𠄎 로 쓰여졌고 후에 “五”로 예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六書”의 용법으로 이 다섯 개의 숫자를 해석했다. 그런데 이들은 지사, 상형, 형성, 회의도 아니고 전주, 가차도 아니다. 단지 선형의 부호이며 숫자로 약정된 것이다. 육서(六書)와 무관하다. 육서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²¹⁾.

漢字	納西 東巴文字	甲骨文	金文
氣	川 卩	三 三	𠄎 𠄎
壽	𠄎		𠄎 𠄎 𠄎
育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孕	𠄎	𠄎	
鬼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招	𠄎		𠄎 𠄎
死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棺	𠄎		𠄎
尸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天	𠄎	𠄎 𠄎	𠄎 𠄎
地	𠄎		𠄎
水	𠄎	𠄎 𠄎	𠄎 𠄎
耳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女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男	𠄎	𠄎 𠄎	𠄎 𠄎

< 표 1. 東巴文字와 甲骨文字, 金文字의 字形 비교²²⁾ >

20) 하영삼 《연상한자 : 문화를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서울 : 3, 2019.

21) 叶文宪 《趣味漢字》, 山東人民出版社, 2014.

V. 결론

한 국가나 나라의 문화는 그 민족이나 국가의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자(文字)는 문명(文明)의 표지이며, 문자가 있어 비로소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문화심리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학문분야를 동파문자라는 중국 소수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잔존하고 있는 문자와 결부시켜 논하고자 하였다.

문화심리학이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는 있어도 학문적으로 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특히 중국 문자와의 접목시도는 최초라고 생각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처음 마중물이 되어주어야 하기에, 용기 내어 서론에 문화심리학에 관한 개론을 언급하고 동파문자에서 이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의 자형들을 찾아내어 서술하였다.

읽어 내려가면서 독자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나름 판단되어 중국 少數民族인 納西族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사람들은 漢字를 상형문자(象形文字)라고 하며, 그림에서 기원한다고 한다.

唐蘭선생은 《中國文字學》에서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이미 많은 회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림은 동물에서부터 인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²²⁾고 했다.

納西族이 사용했던 字形들을 살펴보면, 상형문자의 깊은 잔재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매우 원시적인 것 같으면서도 표현이 매우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실적인 묘사들을 통하여 그 뜻을 나름 지혜롭게 전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세계에 동화되지 않은 순수함도 엿볼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납서족이 사용했던 동파문자로 힐링되고 삶의 찌든 때를 날려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한자를 통한 치유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甲骨文文字와 金文字의 상형성(象形性)과 비교·고찰하는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자를 통한 내면의 치유와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중문학계에 실학의 초석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2) 설영화 〈납서 동파문자의 자형 분석 : 갑골문·금문 자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23) 唐 蘭 (1979) 『中國文字學』,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參考文獻】

- 김용완 《중국 납서족의 문화》, 충남대학교 출판부(궁미디어), 2010.
- 설영화 <납서 동파문자의 자형 분석 : 갑골문·금문 자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 정 일 <Naxi족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 中國人文科學-中國人文學會 31輯, p.637-670. 2005.
- 정정덕 옮김 《운남성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제이앤씨, 2006.
- 최상진 · 김기범 《문화심리학-현대 한국인의 심리분석》, (주) 지식산업사, 2016,
- 하영삼 《뿌리한자 : 어원으로 읽는 150 문화어휘》, 서울 : 3, 2019.
- 하영삼 《연상한자 : 문화를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서울 : 3, 2019.
-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北京 : 中华书局, 1982.
- 裘錫圭 《古代文史研究新探》, 江蘇 : 江蘇古籍出版社, 1992.
- 裘錫圭 《古文字论集》, 北京 : 中华书局, 1992.
- 裘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出版社, 1998.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第 2版 第 8次 印刷本.
- 達世平·沉光海 《古汉语常用字字源字典》, 上海 : 上海书店, 1989.
- 唐 蘭 (1979) 《中國文字學》,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 人蕃茄傳媒機構 (2009) 《世界文化記憶遺產 - 活着的象形文字》, 雲南出版集團公司 雲南人民出版社.
- 林西莉 (1999) 《漢字王國》, 山東畫報出版社.